

# 고전시가의 가렴주구(苛斂誅求=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비판

## 1. 직설적 비판

棉布新治雪樣鮮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黃頭來博吏房錢	황두가 와서는 이방 줄 돈이라며 뺏어가네.
漏田督稅如星火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三月中旬道發船	삼월 중순 세곡선(稅穀船)이 서울로 떠난다고

-정약용, 탐진촌요

爾我本同胞	너나 나나 본래는 똑같은 동포이고,
洪勻受乾父	한 하늘 부모삼아 다 같이 생겼는데,
汝愚甘此卑	너희들 어리석어 이런 천대 감수하니,
吾寧不愧慚	내 어찌 부끄럽고 안타깝지 않을쏘냐.
吾無德及汝	나의 덕이 너에게 미친 것 없었는데,
爾惠胡獨取	내 어찌 너의 은혜 혼자 받으리.
兄長不憐弟	형이 아우를 사랑치 않으니,
慈哀無乃怒	자애로운 아버이 노하지 않겠는가.
僧輩檀匠矣	중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요.
哀彼嶺下戶	영하호(嶺下戶) 백성들은 가련하고나.
巨噸雙馬轎	큰 깃대 앞세우고 쌍마(雙馬) 수레 타고 오니,
服璫傾村塢	촌마을 사람들 모조리 동원하네.
被驅如太鷄	닭처럼 개처럼 내몰고 부리면서,
聲吼甚豺虎	소리치고 꾸중하기 범보다 더 심하네.
乘人古有戒	예로부터 가마 타는 자 지킬 계율 있었는데,
此道棄如土	지금은 이 계율 흠같이 버려졌네.
耘者棄其鋤	밭 갈다가 징발되면 호미 내던지고
飯者哺以吐	밥 먹다가 징발되면 먹던 음식 뱉어야 해.
無辜遭囑庀	죄 없이 욕 먹고 꾸중 들으며,
萬死唯首俯	일만 번 죽어도 머리는 조아려야.
痿躄既踰艱	병들고 지쳐서 험한 고비 넘기면,
噫嗚始贖擄	그 때야 비로소 포로 신세 면하지만,
浩然揚傘去	사도는 일산(日傘)쓰고 호연(浩然)히 가 버릴 뿐,
片言無慰撫	한 마디 위로의 말 남기지 않네.
力盡近其畝	기진 맥진하여 논밭으로 돌아오면
呻歎命如縷	지친 몸 신음 소리 실낱 같은 목숨이네.
欲作肩與圖	이 가마 메는 그림 그려
歸而獻明主	임금님께 돌아가서 바치고 싶네.

-정약용, 가마꾼 中

백골에까지 세금을 매기다니 어찌 그리도 참혹한가.  
 한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모두 횡액을 당하였네.  
 아침 저녁 채찍으로 치며 엄하게 재촉하니,  
 앞마을에선 달아나 숨고 뒷마을에선 통곡하네.  
 닭과 개를 다 팔아도 끈 돈을 갚기엔 모자란다네.  
 사나운 아전들은 돈 내놓으라 다투지만 세금 낼 돈을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사이에도 서로 보살피지 못하고,  
 가족과 뼈가 들러붙어 반쯤 죽은 채로 얼어붙은 감옥에 갇혀 있다네.  
 -정내교, 농가탄(農家歎)

下馬問人居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婦女出門看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坐客茅屋下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爲我具飯餐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丈夫亦何在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扶犁朝上山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山田苦難耕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日晚猶未還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四顧絕無隣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鷄犬依層巒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中林多猛虎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採藿不盈盤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哀此獨何好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崎嶇山谷間	험하고 험한 산골짜에서……
樂哉彼平土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欲往畏縣官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김창협, 산민(山民)

季冬江漢冰始壯	늦겨울 한강에 얼음이 뽕뽕 어니
千人萬人出江上	사람들 우글우글 강가로 나왔네
丁丁斧斤亂相鑿	팡팡 도끼로 얼음을 찍어내니
隱隱下侵馮夷國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네
鑿出層冰似雪山	찍어 낸 얼음이 설산처럼 쌓이니
積陰凜凜逼人寒	싸늘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네
朝朝背負入凌陰	낮이면 날마다 석빙고로 저 나르고
夜夜椎鑿集江心	밤이면 밤마다 얼음을 파 들어가네
晝短夜長夜未休	해 짧은 겨울에 밤늦도록 일을 하니

勞歌相應在中洲  
短衣至胫足無屣  
江上嚴風欲墮指  
高堂六月盛炎蒸  
美人素手傳清水  
鸞刀擊碎四座徧  
空裏白日流素霰  
滿堂歡樂不知暑  
誰言鑿冰此勞苦  
君不見  
道傍喝死民  
多是江中鑿冰人

노동요 노랫소리 모래톱에 이어지네  
짧은 옷 맨발은 얼음 위에 얼어붙고  
매서운 강바람에 언 손가락 떨어지려네  
고대광실 오뉴월 무더위 폭폭 짙 때  
여인의 하얀 손이 맑은 얼음 내어오네  
그 얼음 깨, 자리에 두루 돌리니  
멀건 대낮에 하얀 안개가 피어나네  
악자지꼴 이 양반들 더위를 모르고 사니  
얼음 뜨는 그 고생을 그 누가 알아주리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덩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 김창협, 착빙행(鑿冰行)

田間拾穗村童語    밭고랑에서 이삭 줍는 시골 아이의 말이  
盡日東西不滿筐    하루 종일 동서로 다녀도 바구니가 안 찬다네  
今歲刈禾人亦巧    올해에는 벼 베는 사람들도 교묘해져서  
盡收遺穗上官倉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관가 창고에 바쳤다네

-이달, 습수요(拾穗謠)

## 2. 우의적(寓意的) 풍자(諷刺)

燕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왔을 때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冗    “느릅나무 해나무 묶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 곳에 갇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저귀며  
似與人語酬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榆冗款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항새**가 쪼고  
槐冗蛇來搜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답니다.”

-정약용, 고시

**참새**는 어디서 날아왔는고  
한해 농사가 아랑곳없구나  
**늪**은 **홀아비**가 혼자 갈고 매었는데  
벼와 수수를 다 없애다니

-이제현, 사리화

두터비 **푸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득라 안자

것년 山(산) 브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찌잇거늘 가슴이 금즉혀여 풀덕 뛰여 내똥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넨 널식만정 에혈질 번혀괘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남산골 한 늙은이네 **고양이**를 길렀더니  
해묵고 피 들어 妖惡(요악)하기가 늙은 여우로다.  
밤마다 초당에서 고기 뒤져 훔쳐 먹고  
작은 단지 큰 단지 마구잡이 깨뜨리네.

<중략>

네 놈이 생겨날 때 무엇 하러 생겼더니.  
너로 하여금 쥐 잡게 해 백성 근심 덜려 했지.  
들쥐는 구멍 파서 여린 낱알 숨겨두고  
집쥐는 집을 파서 모든 집안 살림과 물건 훔치네.  
백성들 쥐 피해로 날마다 초췌해져  
기름 피 다 마르고 피골도 말랐다네.  
이에 너로 하여 쥐 잡는 대장 삼았으니  
쥐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권력 네게 주었네.

<중략>

쥐들은 훔친 물건 모아서 네게 뇌물 주고  
태연히 네놈과 함께 돌아다니니  
好事家(호사가)들 때때로 너를 본받아  
무수한 쥐떼들이 하인처럼 떠 받들어  
복 치고 나팔 불며 떼를 지어선  
깃발 휘날리며 앞장서 가네.  
너는 큰 가마 타고 거만 부리며  
못 쥐들의 떠 받들만 즐기고 있구나.  
내 이제 붉은 활에 큰 화살 메겨 내 손으로 네 녀석 쏘아 잡으니  
만약에 쥐들이 행패부리면 차라리 사나운 개를 불러 대리라.

-정약용, 이노행(狸奴行)

一身(일신)이 사자 한이 물것 계워 못 견딜썬.

皮(피)스겨 가튼 갈랑니 보리알 가튼 슈통니 줄인니 갓 깐니 잔 벼룩 굴근 벼룩 강벼룩 倭(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  
에 黠黠(비파) 가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 가튼 등애아비 값다귀 삼의약이 센 박희 높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불이 뽕  
족한 목의 달리 기다한 목의 야윈 목의 살진 목의 글임애 뽕록이 晝夜(주야)로 뵈 뵈 때 업시 물건이 쏘건이 빨건이 뜻  
건이 棼(심)한 唐(당)빌리 예셔 얼여왜라.

그 中(중)에 참아 못 견딜손 六月(유월) 伏(복)더위에 **쉬파린**가 하노라.

-작자미상, 사설시조